

농업 외국인력 10만2000명 도입 곡물·기타식량작물도 첫 고용허가

농식품부, 고용부·법무부 협의

상반기 농업 외국인력 역대 최대
계절근로자 중심 공급 물량 확대
곡물·식량작물 농가 고용 포함
소규모 농가도 고용 요건 완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내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명 이상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2026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올해 상반기배정 인원(6만1248명)에 비해 43% 늘어났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올해 90개소 3047명에서 내년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 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총 10만2104명으로 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의 한 농촌지역에 파견돼 일손을 돕고 있다.

/뉴시스

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 및 시설원에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과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부문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는데, 앞으로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협, 도농상생기금 하반기 4717억 지원

도시 농축협 자발적 출연확대 농촌 농축협 경영안정 뒷받침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4717억 원 규모의 도농상생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상생위는 도시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해 왔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도농상생기금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올해 이번 지원금을 포함해 상·하반기 도합 8405억 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했다.

농협 관계자는 “전년대비 49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전국 228개 도시농축협의 경영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동참해 도농상생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자연재해 및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에 따른 경제사업 손실 보전에 나선다. 아울러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를 중심으로 도농상생기금을 지속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해, 전국 농축협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 크루즈 기항지에 전북·경남권 추가

해수부, 새만금·마산항 선정
서해·남해 크루즈 거점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전북 새만금신항과 경남 창원 마산항을 국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항지로 추가된 두 지역은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산항의 경우,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고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새로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부산, 인천, 제주, 전남

여수, 강원 속초,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의 활성화에 나선다. 이들 기항지가 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크루즈 선사·여행사와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행사 및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잡월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재획득

3년간 3.6만명 진로교육 성과 인정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25년도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28일 한국잡월드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직업·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교육기부 기관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신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성과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3년간 한국잡월드는 총 906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만 6093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기부 활동을 제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

우르는 ‘어쩌다 진로’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약계층 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구성고등학교(특수) 등 도서·산간 및 교육격차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취약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혔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인증 갱신은 교육기부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환경·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연·고 수시 미충원 4년 새 최대

종로학원, 정시 이월 확대 분석
자연계 변수·인문계 경쟁 심화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미충원이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인문계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6학년도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서·연·고가 공개한 이월 인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시 미충원 인원은 총 378명으로, 지난해(279명)보다 89명(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충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 서·연·고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은 263명으로, 전년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 인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연도별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318명 ▲2024학년도 337명 ▲2025학년도 279명 ▲2026학년도 368명으로, 202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자연계열 미충원 역시 ▲2023학년도 183명 ▲2024학년도 189명 ▲2025학년도 128명에서 2026학년도 263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132명 ▲140명 ▲143명에서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 경영대학과 농경제사회학부 각 1명씩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9개 학과에서 총 61명이 이월됐다. 간호대학과 응용생물화학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학계열 4명, 첨단융합학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현진 기자 lhj@



(가운데 오른쪽부터)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진안군민들이 지난 26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양수발전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펼쳐보이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600MW 규모 진안양수발전소 추진

범군민 결의로 유치 의지 결집 에너지 전환 핵심 인프라 기대

한국동서발전이 전북 진안군민들과 함께 대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공식화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6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기원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진안군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의지를 다졌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전북완주·진안·무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사말에서 “양수발전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 “진안군은 양수발전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수발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와 결속, 군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결의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